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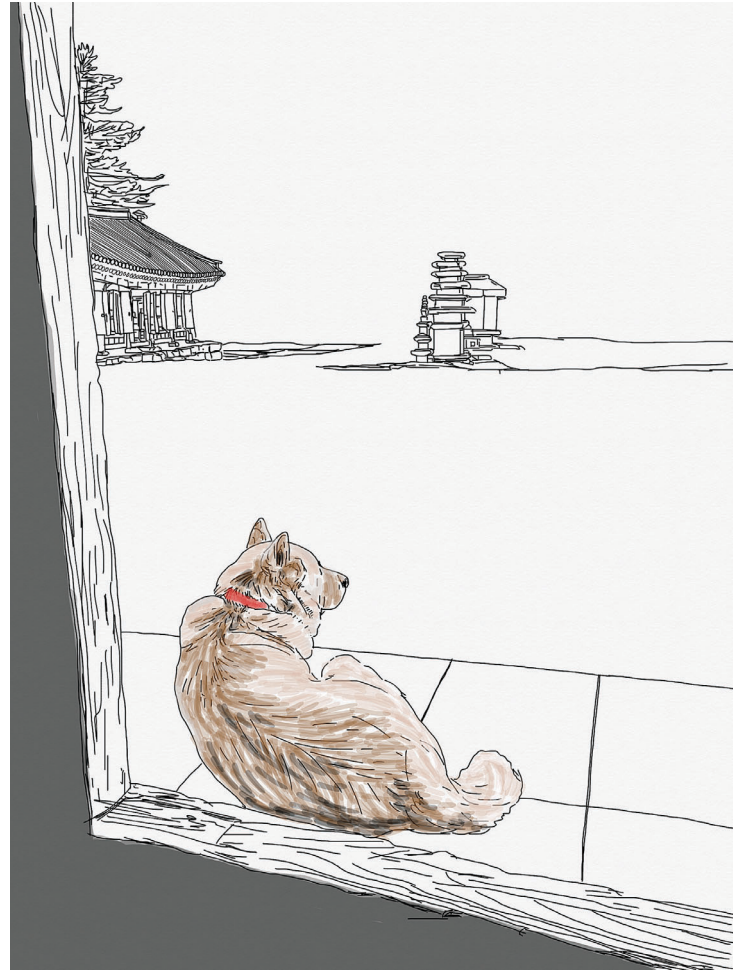


배종훈의 명상가툼

臥佛로 이르는 길

대웅전 본존불 뒤편 벽면에 그려진 천수천안관음도(千手千眼觀音圖). 그 앞에 선 나는 둘 밖에 없는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는다. 특별히 빌 것도 없으면서 무엇이든 빌고 싶어진다.

종무소로 쓰이는 보제루를 나오려는데 그 앞에 절집의 개가 자리를 잡고 앉아 해지는 산 너머를 보고 있다. 사람 기척에 고개를 돌리지도, 움찔하며 일어서지도, 고쳐 앉지도 않는다. 그저 슬쩍 갈 길 가라는 눈빛이다. 내 길이 해가 지는 산 위에 있는 '와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산으로 난 길을 오르며 돌아보니 절집 개는 자리에 없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대비주(大悲呪) ㉠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바로 사랑

“음식이 맛이 없니? 왜 안 가져다 먹어?” 아영이는 세 번째 점시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야채 쪄가리가 놓여있는 점시를 포크로 휘저으며 앉아 있었다.

“스테이크는 안 나오니?” “아, 미안해. 뷔페만 먹어야겠다. 아빠가 바빠서 먼저 계산하고 가셨는데, 스테이크 주문하는 걸 깜박하신 것 같아. 아빠 배가 내일 출항이라서 정신이 없으셨거든.”

“그래? 이번엔 어디로 가시니?” “으응, 러시아. 대구를 잡을 거래. 러시아 대구는 엄청나게 크대. 내 키 만한 대구도 아주 흔하대. 돌아오실 때 러시아에서 마트료시카 인형을 사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기대돼.”

아빠 얘기를 하는데도 아이들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대구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추위에 대해서, 마트료시카 인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호응했었을 것이다.

아영이의 아빠가 배를 탄다는 건 사실이었다. 아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큰 원양어선 선장은 아니었지만, 아빠에게 가서 사는 동안 아영이는 아빠를 세 번 만났다. 다음 승선 때까지 아빠는 집에서 내내 잠만 잤다. 검게 그을린 피부, 러닝셔츠 위로 볼거져 나온 척추의 마디들, 감지 않은 머리에 하얗게 달라붙어 있는 비듬, 새엄마가 아영이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헛기침만 하다가 “이제 좀 그만해”라는 짜증스런 말투, 그것이 아빠에 대한 기억의 전부였다.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자. 나 미술학원 가야해.”

“아, 미안해. 뷔페만 먹어야겠다. 아빠가 바빠서 먼저 계산하고 가셨는데, 스테이크 주문하는 걸 깜박하신 것 같아. 아빠 배가 내일 출항이라서 정신이 없으셨거든.”

“그래? 이번엔 어디로 가시니?” “으응, 러시아. 대구를 잡을 거래. 러시아 대구는 엄청나게 크대. 내 키 만한 대구도 아주 흔하대. 돌아오실 때 러시아에서 마트료시카 인형을 사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기대돼.”

아빠 얘기를 하는데도 아이들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대구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추위에 대해서, 마트료시카 인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호응했었을 것이다.

아영이의 아빠가 배를 탄다는 건 사실이었다. 아이들에게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큰 원양어선 선장은 아니었지만, 아빠에게 가서 사는 동안 아영이는 아빠를 세 번 만났다. 다음 승선 때까지 아빠는 집에서 내내 잠만 잤다. 검게 그을린 피부, 러닝셔츠 위로 볼거져 나온 척추의 마디들, 감지 않은 머리에 하얗게 달라붙어 있는 비듬, 새엄마가 아영이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헛기침만 하다가 “이제 좀 그만해”라는 짜증스런 말투, 그것이 아빠에 대한 기억의 전부였다.

“다 먹었으면 그만 일어나자. 나 미술학원 가야해.”



그림 · 강병호

할머니가 꼬깃꼬깃 접힌 만 원짜리 지폐 여섯 장을 아영이 앞에 놓았을 때, 아영이는 할머니가 늘 끼고 있던 반지가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반지가 있던 자리에 하얗게 남아있는 자국을

나온 거라 흔하지 않은 건데, 소매가 찢어져서 입을 수 없게 됐거든. 엄마가 기부했다고 했는데, 혹시 소매 안쪽 좀 보여줄 수 있니?”

다정한 말투로 말하고 있지만, 은채의 눈빛이 싸늘했다. 어쩌면 은채는 벌써 바느질 자국을 봐 버렸던 건지도 모른다. 은채 뒤에는 주연이와 민서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가늘게 뜬 눈, 한쪽만 올린 입술, 단단하게 긴 팔짱. 아이들은 예린이를 대할 때의 표정과 몸짓으로 아영이를 향해 다가 오고 있었다. 아영이는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따위 원피스, 당장이라도 갈거리 찢어 버리고 싶었다.

“내가 불쌍하니?” 맥없이 그대를 흔들며 아영이가 물었다. 예린이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네 엄마는 왜 팔짱에 커다란 슬픔이라는 글자를 새기셨을까? 대비주는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는 기도라고 아빠가 그랬어. 관세음보살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보일 거야. 부자도, 가난뱅이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우리는 모두 가련하고 불쌍하지. 이 세상에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보고, 함께 느끼는 게 나쁜 거니?”

병상에서 엄마는 아영이를 볼 때마다 ‘가련한 우리 아영이’ 라고 불렀다. 그 말은 아영이에게 ‘사랑하는’이라는 말로 들렸다. 아영이가 그토록 듣기 싫었던 말, 연민, 그 말을 사랑이라고 바꾸고 나니 모란 마음이 한결 동글어지는 것 같았다.

“내일 학교 올 거지?” 예린이가 길 건너편에서 큰 소리로 물었다. 캄캄해진 놀이터에 앉아서 엄마의 팔짱을 매만지며 아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의 분석심리학으로 바라본 선사들의 깨달음!

자아(自我)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대상이며, 자아를 아는 것이 무아이고,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선사들이 어떻게 자아와 직면하여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일화와 어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조사선을 심리학으로 풀어낸 최초의 책.

자아와 깨달음?
심리학으로 통하다

최명희 지음 | 신국판 | 무선 | 380쪽 | 값 17,000원

정토삼부경의 해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 가운데 가장 쉽고 성취가 빠른 정토 및 염불 수행!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원문과 우리말 번역, 해설과 주해를 통해 알기 쉽게 만난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염불수행은 남녀노소 누구나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무생법인을 얻어 성불할 수 있는 길이다.

번역 및 해설 서주 태원 | 신국판 양장 | 632쪽 | 값 30,000원